

의복원형설계 관련 연구의 동향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원형설계 논문을 중심으로-

오송윤 · 최혜선[†] · 김은경*

이화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서울디지털대학교 디지털패션전공

Research Trends on Development of Basic Patterns of Clothing -Focus on Research Reported in Korean Journals-

Song-Yun Oh · Hei-Sun Choi[†] · Eun-Kyong Kim*

Dept. of Clothig &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Dept. of Digital Fashion, Seoul Digital University

접수일(2010년 5월 14일), 수정일(2010년 7월 21일), 게재확정일(2010년 8월 11일)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tudies of development of apparel basic pattern published in domestic journals and the trends in related studies. It also provides basic information on directions for future studies. The data was collected from the theses of domestic journals of the Korean Studies Information (KSI) which were published until December 31, 2009 and retrieved by a keyword related to the design of basic apparel patterns. The data was classified by the journals, the year of publication, research themes, research subjects, and research methods. They were analyzed to find out the overall distribution status and characteristics by time. The number of theses for the analysis was 73 published in 11 journals total. Reviewing the theses by dividing the times into 7 Chronicles of 5 years in each term since the first thesis was published in 1968, it was found that more active research had been done as time went by. The theme of the theses in most cases was the composition of western apparel. As for items, most cases were on the study of bodice·torso basic patterns. Since the period of 5-6 Chronicles, studies in the pattern of underwear, jacket, shirts·blouse have gradually increased and the development of patterns using elastic materials are increasing as well. Women were dominant in the studies as subjects and so were young people of both sexes. Unlike the studies in earlier times that focused on the average figure, studies on developing patterns for various figure types have been made since the 5-6 Chronicles. However, there were limited studies on the figures of infants, male youth, seniors, and obese males. As for the research methods, there were common processes for validity testing of patterns through the measurement of the human figure, survey of customers and companies, designing pilot patterns, and wearing trials. The studies showed characteristic the differences in research methods according to the period.

Key words: Clothing construction, Basic pattern, Drafting method, Journal, Research trend; 의복구성, 원형패턴, 제도방법, 학술지, 연구동향

[†]Corresponding author

E-mail: hschoi@ewha.ac.kr

I. 서 론

원형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응용되거나 변화되기 전의 원형(type) 또는 형(form, shape)과 같은 의미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사용된다. 피복구성학에서 사용되는 경우는 패턴메이킹(pattern making)을 위해 사용하는 기본 패턴을 지칭하여 원형이라고 하며, 이 패턴은 장식이 없고 단순한 인체형 성형 의복(原型衣)의 패턴이다(문화여자대학교피복구성학연구실편, 1985/1987). 의복은 착용자의 신체특성에도 잘 맞아야 하고 사람의 여러 동작활동에도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외관상 시각적으로 훌륭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구비해야 하는데, 의복이 이러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의복원형이 이러한 조건에 맞게 제작되어야 한다(최해주, 1980). 또한 원형은 어떤 방법이든 누구에게나 잘 맞고, 쉽게 이해되어 제도되며 여러 디자인에 활용하기 쉬운 방법이 바람직한다(정혜락, 함옥상, 2000). 원형제도법의 연구는 체형의 변화와 시대적인 변천에 따라 주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임원자, 2003) 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원형설계에 대한 연구는 의복구성 분야에서 그 어떤 연구보다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연구영역이라 할 수 있으며, 의복원형설계에 관한 그간의 연구들의 흐름을 살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의복원형설계와 의복구성 관련 연구의 발전에 있어 큰 의의가 있다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복원형설계법을 제시한 선행연구들에 대하여 연구의 주제 및 대상, 연구방법 등을 고찰함으로써 앞으로 의복원형설계 관련 연구가 나아가 할 방향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며,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의복원형설계 관련 논문을 검색하여 발행지, 발행연도, 연구주제인 원형의 종류, 연구대상의 연령, 성별 및 체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동향을 연대별로 살펴본다.

둘째,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의복원형설계 관련 논문을 고찰하여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원형설계 프로세스를 도출하고, 양적 접근을 통하여 원형설계의 구체적인 연구방법과 연대별 특징을 살펴본다.

셋째,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의복원형설계 관련 논문을 대상으로 관련 연구의 연대별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원형개발 논문이 나아가 할 방향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한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조사방법으로 실시되었으며, 선행연구(전은경, 한현정, 2008)의 자료수집방법을 참고로 하여 본 연구주제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문헌탐색을 한 후 문헌고찰 및 분석을 하였다.

1. 자료수집

1) KSI(한국학술정보)의 국내 학술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원형설계, 원형개발, 원형제작, 원형구성, 패턴개발, basic pattern이라는 용어로 검색된 논문 중 의복원형설계 관련 논문을 발췌하였다.

2) 발췌된 논문의 참고문헌을 통해 국내 학술지에 보고된 다른 의복원형설계 관련 논문들을 KSI를 통하여 검색한 후, 검색된 논문을 포함하였다.

3) 앞의 과정에서 검색된 논문 중에서 인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의복설계 논문 및 인체의 머리 또는 손, 발 부위를 대상으로 한 논문, 그리고 연구자가 제안하는 의복원형설계방법(원형제도법)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논문들을 제외하였다.

2. 자료분석

이상의 문헌탐색을 통해 수집된 학술지 논문은 총 73편으로, 2009년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KSI(한국학술정보)를 통해 검색된 의복원형설계 관련 학술지 논문을 포함하였다. 각 논문은 시대 흐름에 따른 연구동향의 특성을 살피기 위해 5년 단위로 분류하여 발행지와 발행연도별로 분석하였고, 이를 다시 연구주제(피복 부위 및 복종, 소재), 연구대상(성별 및 연령, 체형), 연구방법 등에 따라 나누어 전체적인 분포상황과 시대별 특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의 연도 분류는 최초 발표된 연도를 기준으로 5년 단위로 묶어 1연대(1968~1980년), 2연대(1981~1985년), 3연대(1986~1990년), 4연대(1991~1995년), 5연대(1996~2000년), 6연대(2001~2005년) 그리고 7연대(2006~2009년)로 편의상 구분하였는데, 제1연대는 1968~1980년까지 3편의 논문만이 발표되었으므로 12년을 하나의 연대로 묶어 분석하였다. 또한 의복원형설계 연구에 있어 공통적으로 사용된 연구절차를 도출해 내고, 각 절차에 따른 연구방법의 구체적 내용과 시대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17.0 for

Windows를 사용하였다.

III. 문헌고찰

1. 발행지 및 발행연도에 대한 분석

수집된 73개의 의복원형설계 연구들을 게재된 학술지별, 연대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우선 의복원형설계 연구의 학술지별 발표현황을 살펴보면, 의복원형설계 논문이 발표된 학술지는 총 11개로 그 중 「한국의류학회지」와 「대한가정학회지」를 통하여 발표된 논문이 총 42편으로 조사대상 논문의 57.5%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외에 「복식」과 「복식문화연구」에 각각 7편(9.6%), 「한국생활과학회지」와 「패션비즈니스」에 각각 5편(6.8%)이 게재되었다. 각 학회지가 창간된 시점에 차이가 있어 제1연대에는 의복원형설계 논문 3편 모두 대한가정학회지(1959년 창간)에서 발표되기 시작하였으나, 1977년 한국의류학회지와 복식이 창간된 이후 차차 여러 학술지에서 관련 논문이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한국의류학회지는 제5연대 이후 의복원형설계 논문 발표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여 조사대상 전체 논문 수의 39.7%에 해당하는 29편의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의복원형설계 연구의 연도별 발표현황을 살펴보면, 1968년 대한가정학회지에 발표된 임원자(1968)의 논문을 시작으로 1995년까지 27년간 발표된 논문은 총

15편(20.5%)에 불과했으나, 1996년에서 2009년까지 14년간 58편(79.5%)의 논문이 발표되어 의복원형설계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까지 KSI를 통해 검색된 논문들만을 포함하고 있어 제7연대에 발표된 논문 수(17편-23.3%)가 제6연대(23편-31.5%)에 비해 감소된 듯 보이나, 본 연구의 논문 검색 시점에서 이미 발표된 의복원형설계 관련 석·박사 학위논문을 고려한다면 앞으로도 의복원형설계 관련 논문들이 학술지에 상당 수 추가 게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의복원형설계 연구는 시대가 흐를수록 꾸준한 증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할 수 있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높아짐으로 인해 본인의 체형과 체격에 보다 잘 맞고 편안하며 시각적으로 보기 좋은 의복을 원하는 현대인의 의생활특성과 요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주제에 대한 분석

1) 복종별 분석

조사된 의복원형설계 연구의 주제 즉, 설계하고자 하는 의복원형의 종류를 크게 서양의복구성과 한복구성으로, 서양의복은 다시 겹옷과 속옷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표 2). 대부분의 조사대상 연구는 서양의복구성을 주제로 하고 있었는데, 한복구성(5편-6.8%)의 경우 제5연대에서 속옷구성(6편-8.2%)의 경우 제

<표 1> 의복원형설계 연구가 발표된 학술지 및 연대

학술지명	연 대								계
	1연대 1968~1980	2연대 1981~1985	3연대 1986~1990	4연대 1991~1995	5연대 1996~2000	6연대 2001~2005	7연대 2006~2009	학회지별 논문 수(%)	
한국의류학회지	0	4	2	0	6	10	7	29(39.7%)	
대한가정학회지	3	1	2	0	2	4	1	13(17.8%)	
복 식	0	0	0	0	3	2	2	7(9.6%)	
복식문화연구	0	0	0	0	3	2	2	6(9.6%)	
한국생활과학회지	0	0	0	1	2	0	2	5(6.8%)	
패션비즈니스	0	0	0	0	0	2	3	5(6.8%)	
생활과학	0	0	0	0	1	2	0	3(4.1%)	
한국섬유공학회지	0	0	0	0	0	1	0	1(1.4%)	
首善論集	0	1	0	0	0	0	0	1(1.4%)	
인문과학	0	0	1	0	0	0	0	1(1.4%)	
한국의류산업학회지	0	0	0	0	1	0	0	1(1.4%)	
계	논문 수	3	6	5	1	18	23	17	73(100.0%)
	전체 %	4.1%	8.2%	6.8%	1.4%	24.7%	31.5%	23.3%	

6연대에서 비로소 첫 연구가 시작되어 서양의복구성: 겹옷(62편-84.9%)에 비하여 연구의 역사가 매우 짧으며, 연구의 수도 상대적으로 매우 적어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로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관점에서 의복원형구성 연구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에게는 좋은 연구주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사대상 논문들이 다룬 복종을 Bodice, Sleeve, Skirt, Slacks, Jacket, Blouse · Shirt, Underwear 등의 아이템 별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3>에 나타내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연구된 아이TEM은 길 · 토루소원형(27편-37.0%)이었고, 이어 바지원형(13편-17.8%)이 두 번째로 많이 연구되었다. 의복원형의 기본인 bodice, sleeve, skirt 원형에 대한 연구는 제1~2연대에서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지속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데, 길 · 토루소원형은 최근 들어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연구되고 있는 반면 스커트나 화운데이션드레스 등은 연구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바지원형은 제3연대에 한 편이 발표되었을 뿐 제4연대까지 연구가 지속

<표 2> 의복원형설계 연구의 주제 - 복종 I

연 대		1연대	2연대	3연대	4연대	5연대	6연대	7연대	계
		1968-1980	1981-1985	1986-1990	1991-1995	1996-2000	2001-2005	2006-2009	복종 I별 논문 수(%)
서양 의복구성	겹 옷	3 (100.0%)	6 (100.0%)	5 (100.0%)	1 (100.0%)	15 (83.3%)	21 (91.3%)	11 (64.7%)	62(84.9%)
	속 옷	0	0	0	0	0	1 (4.3%)	5 (29.4%)	6(8.2%)
한복구성		0	0	0	0	3 (16.7%)	1 (4.3%)	1 (5.9%)	5(6.8%)
계	논문 수	3	6	5	1	18	23	17	73(100.0%)
	연대의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3> 의복원형설계 연구의 주제 - 복종 II

연 대		1연대	2연대	3연대	4연대	5연대	6연대	7연대	계
		1968-1980	1981-1985	1986-1990	1991-1995	1996-2000	2001-2005	2006-2009	복종 II별 논문 수(%)
길/토루소		1 (33.3%)	4 (66.7%)	0	1 (100.0%)	5 (27.8%)	9 (39.1%)	7 (41.2%)	27(37.0%)
소 매		0	0	1 (20.0%)	0	0	1 (4.3%)	0	2(2.7%)
길+소매(+스커트)		2 (66.7%)	0	2 (40.0%)	0	1 (5.6%)	1 (4.3%)	0	6(8.2%)
스커트		0	1 (16.7%)	1 (20.0%)	0	1 (5.6%)	1 (4.3%)	0	4(5.5%)
바 지		0	0	1 (20.0%)	0	6 (33.3%)	4 (17.4%)	2 (11.8%)	13(17.8%)
블라우즈/셔츠		0	0	0	0	0	1 (4.3%)	2 (11.8%)	3(4.1%)
재킷		0	0	0	0	2 (11.1%)	3 (13.0%)	1 (5.9%)	6(8.2%)
브래지어 · 팬티		0	0	0	0	0	2 (8.7%)	4 (23.5%)	6(8.2%)
한복 및 기타		0	1 (16.7%)	0	0	3 (16.7%)	1 (4.3%)	1 (5.9%)	6(8.2%)
계	논문 수	3	6	5	1	18	23	17	73(100.0%)
	연대의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되지 못하다가 제5연대부터 급속도로 연구 수가 증가하여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제5연대에 접어들면서 재킷원형과 한복원형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기 시작하였고, 제6연대에는 블라우스·셔츠원형과, 브래지어원형 구성법에 대한 연구가, 제7연대에 들어서는 팬티원형 구성 연구가 처음으로 발표되어 의복원형설계 연구의 주제가 점차 다양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시대흐름에 따른 연구주제의 동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많이 다루어지던 연구주제인 길·토루소원형은 3차원 인체스캐너와 같은 새로운 측정방법 및 대량맞춤을 위한 CAD 시스템의 개발에 힘입어 새로운 연구방법을 시도하는 논문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반면 바지원형, 블라우스·셔츠원형, 재킷원형, 브래지어·팬티원형 등의 연구주제는 기존의 전통적인 연구방법을 사용하면서 앞서 시도되지 않았던 복종으로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 소재별 분석

의복원형설계 연구에 사용된 소재의 스트레치성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조사대상 연구의 대부분은 광목을 사용하여 실험의 및 연구원형을 제작하였는데, 이는 비신축성소재를 사용하는 의복의 원형개발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아름다운 외관을 유지하면서도 착용 시의 쾌적함과 기능성을 향상시킨 의복을 제작하기 위하여 상당수의 의류제품개발에 스트레치성이 부여된 소재를 사용하고 있어, 소재의 축률변화에 따라 그에 적합한 의복원형개발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제6연대 이후 신축성소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발표되기 시작되었고, 또한 브래지어, 팬티 등 신축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복종에 대한 연구가 시도됨으로써 소재의 축률을 고려하는 원형설계연구

가 시도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신축성소재를 사용한 원형설계 논문은 총 73편 중 10편(13.7%)에 그쳤으나, 제6연대 이후의 연구비율로 보았을 때는 연대별 25% 전후의 높은 비율을 나타내며 새로이 각광받는 연구주제로 떠오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연구대상에 대한 분석

1) 성별, 연령별 분석

의복원형설계 연구대상의 성별 및 연령층을 연대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5>에 나타내었다. 연구대상 성별은 여자원형에 대한 연구가 53편(72.6%)으로 남자원형에 대한 연구 20편(27.4%)보다 3배 가까이 많이 이루어졌다. 여자원형에 대한 연구는 제2연대까지 여아, 여중고생 및 여대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제3연대 이후 차차 중년 및 노년층으로 그 대상을 넓혀갔고, 남자원형에 대한 연구는 윤정혜, 이정순(1997)에 의해 제5연대에야 처음으로 시작되었는데 그 대상은 학령기 남자아동이였다. 연구대상 연령층은 여자와 남자 모두에서 청년기(남자 11편-15.1%, 여자 20편-27.4%) 및 전체성인(남자 4편-5.5%, 여자 9편-12.3%)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여자의 경우 중년기(8편-11.0%), 남자의 경우 학령기 아동(2편-2.5%)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여자와 남자 모두에서 유아아기를 대상으로 한 원형설계 연구는 전무하였으며, 또한 남자의 경우 청소년기와 노년기에 맞는 원형설계 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앞으로 관련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체형별 분석

의복원형설계 연구대상의 체형을 성별과 연대별로 분석하였다(표 6). 연구대상 체형은 남자와 여자에서 모두 평균체형·치수(남자 11편-15.1%, 여자 14편-

<표 4> 의복원형설계 연구의 주제 - 소재

연 대	1연대	2연대	3연대	4연대	5연대	6연대	7연대	계
	1968-1980	1981-1985	1986-1990	1991-1995	1996-2000	2001-2005	2006-2009	
비신축성소재	3 (100.0%)	6 (100.0%)	5 (100.0%)	1 (100.0%)	18 (100.0%)	18 (78.3%)	12 (70.6%)	63(86.3%)
신축성소재	0	0	0	0	0	5 (21.7%)	5 (29.4%)	10(13.7%)
계	논문 수	3	6	5	1	18	23	73(100.0%)
	연대의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5> 연대별 의복원형설계 연구대상의 성별 및 연령대

연대	성별 연령대	남 자								여 자								연대별 논문 수 (%)		
		유 유 아	아 동	청 소 년	청 년	장 년	중 년	노 년	성 인	기 타	유 유 아	아 동	청 소 년	청 년	장 년	중 년	노 년		성 인	임 부 기 타
7 연 대	2006~ 2009				4		1		1		3		4				2	2		17 (23.3%)
6 연 대	2001~ 2005		1		4	1			3						2					23 (31.5%)
5 연 대	1996~ 2000		1		3							2	4		4			1	2	18 (24.7%)
4 연 대	1991~ 1995																		1	1 (1.4%)
3 연 대	1986~ 1990												1		2			1	1	5 (6.8%)
2 연 대	1981~ 1985										1	1	3				1			6 (8.2%)
1 연 대	1968~ 1980										1	1	1							3 (4.1%)
계	논문 수	0	2	0	11	1	1	0	4	1	0	5	4	20	0	8	3	9	4	73 (100.0%)
	성별 %	0.0%	10.0%	0.0%	55.0%	5.0%	5.0%	0.0%	20.0%	5.0%	0.0%	9.4%	7.5%	37.7%	0.0%	15.1%	5.7%	17.0%	7.5%	
	전체 %	0.0%	2.7%	0.0%	15.1%	1.4%	1.4%	0.0%	5.5%	1.4%	0.0%	6.8%	5.5%	27.4%	0.0%	11.0%	4.1%	12.3%	5.5%	
	성별 계	20 (27.4%)								53 (72.6%)										

음영=진할수록 빈도가 높아짐을 의미

<표 6> 연대별 의복원형설계 연구대상의 성별 및 체형

연대	성별 체형	남 자						여 자						연대별 논문 수 (%)	
		평 균 체 형	표 준 체 형	대 표 체 형	비 만 체 형	기 타* 체 형	제 시 안 함	평 균 체 형	표 준 체 형	대 표 체 형	임 부 체 형	비 만 체 형	기 타* 체 형		제 시 안 함
7연대	2006~2009	6		2			1		2	2		1			17 (23.3%)
6연대	2001~2005	3	1					1				1		2	23 (31.5%)
5연대	1996~2000							4			2	1			18 (24.7%)
4연대	1991~1995										1				1 (1.4%)
3연대	1986~1990							1	1		1	1		1	5 (6.8%)
2연대	1981~1985							1	2					3	6 (8.2%)
1연대	1968~1980							1						2	3 (4.1%)
계	논문 수	11	1	2	0	5	1	14	10	2	4	4	11	8	73 (100.0%)
	성별 %	55.0%	5.0%	10.0%	0.0%	25.0%	5.0%	26.4%	18.7%	3.8%	7.5%	7.5%	20.8%	15.1%	
	전체 %	15.1%	1.4%	2.7%	0.0%	6.8%	1.4%	19.2%	13.7%	2.7%	5.5%	5.5%	15.1%	11.0%	
	성별 계	20 (27.4%)						53 (72.6%)							

음영=진할수록 빈도가 높아짐을 의미

*기타체형=하반신유형, 유방유형, 어깨유형, 측면체형(굴신, 반신, 바른체형), 바른체형 등

19.2%)가 가장 많았다. 여자원형의 경우 표준체형(10편 -13.7%) 및 임부체형, 비만체형, 기타 다양한 체형(11편 -15.1%)에 대한 연구 시도가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진 반면 남자원형의 경우 성옥진, 양정은(2006)의 '중년 남성의 체형별 셔츠원형개발에 관한 연구', 김경임, 이정란(2003)의 '하반신마비 남성의 기성복 바지원형 및 그레이딩 연구', 김진선, 이원자(2001)의 '남성 재킷패턴설계에 관한 연구' 이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평균체형·치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남자 비만체형에 대한 연구가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비만체형 남성을 대상으로 한 원형개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대상을 연대별로 살펴보면 평균체형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상당 수 이루어지고 있었고, 임부체형은 제3~5연대에 4편(5.5%), 비만체형은 제3연대부터 연대당 1편 꼴로 발표되었다. 다양한 체형분류에 따른 특이체형 원형개발 논문의 경우 제5연대와 제6연대에서 각각 6편과 10편, 총 16편(21.9%)이 발표되어 1995년까지 평균 및 임부체형에 집중되어 있던 연구대상이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복원형설계의 연구주제가 동일하여도 성별, 연령대 등과 같은 연구대상에 차이를 둘 수 있으며, 동일한 연구대상일지라도 시대흐름에 따른 체형변화와 미적 기준에 대한 변화를 고려해야 하므로, 의복원형설계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그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4. 연구방법에 대한 분석

조사대상 논문의 연구방법을 종합적으로 살펴 분석한 결과 <표 7>과 같은 의복원형설계 논문의 공통적인 연구절차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 첫째, 의복원형이 인체에 입혀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착용대상의 인체치수와 형태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필요하고, 따라서 의복원형설계는 인체측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둘째, 실험원형설계에 앞서 연구내용에 따라 소비자 및 업체의 요구 및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셋째, 실험원형은 수차례에 걸친 착의실험을 통해서 패턴의 수정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과정으로 완성된 원형은 연구원형으로 완성되었다. 넷째, 완성된 연구원형에 대한 적합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원형에 대한 착의평가가 이루어졌으며, 마지막으로 인체측정, 소비자 또

는 업체 조사, 착의평가를 통해 얻은 자료는 적절한 통계기법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조사대상 논문 중 5편의 논문은 연구원형에 대한 그레이딩방법과 물을 제시하였는데, 조사대상 논문의 연구절차별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체측정

조사대상 논문 중 인체측정을 수행한 연구(동일 연구자의 선행연구에서 인체측정을 실시한 경우 포함)는 총 73편 중 53편으로, 1차원적 방법으로는 마틴계측법과 같은 직접측정법이 2차원적 방법으로는 사진계측법·실루에터법·슬라이딩게이지법 등이 사용되었으며, 3차원적 방법으로는 슬라이딩게이지에 의한 단면중합·레플리카법·무아레사진촬영법과 3차원 스캐너를 사용한 측정방법 등이 사용되었다(표 8). 조사대상 연구에서는 1차원적 측정방법을 사용한 논문이 46편(64.8%)으로 가장 많았는데, 2가지 이상의 측정방법을 병용한 연구 17편(23.3%) 모두는 1차원적 측정과 함께 병행하여 실시되었고, 2차원적 측정만 실시한 연구는 없었으며, 3차원적 측정방법만을 사용한 연구는 6편(8.2%)으로 그 중 5편이 2004년 이후의 논문이었다(표 7). 2차원 측정방법으로는 사진촬영법이, 3차원 측정방법으로는 슬라이딩게이지법과 석고법 등이 가장 빈번히 사용되었으며, 특히 2004년 이후에는 3차원 인체스캐너를 사용한 3차원적 측정방법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다.

인체측정의 피험자 수는 연구마다 차이가 있으나 주로 직접측정법에 의한 연구에서 그 수가 많은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임원자(1968)의 연구에서는 무려 4,550명에 이르는 중고등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직접측정하였다. 측정항목 수는 적개는 4개 항목(나미향, 1997; 나미향 외, 1995; 이숙녀, 도재은, 1982)에서 많게는 73개 항목(손희순, 손희정, 1997)까지로 1차원적 측정시의 측정항목 수가 2·3차원적 측정 시 보다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측정항목 수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경향보다는 연구의 주제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성희, 임원자(1984)의 논문을 제외한 1997년까지의 초창기 원형설계 논문들은 모두 인체측정을 실시하였으나, 1997년 이후에는 연구과정에서 인체측정을 실시하지 않는 대신 측정치 자료를 차용하거나 업체 조사로 대체하는 연구방법을 사용하는 연구가 늘어나고 있었다. 동일 연구자의 선행연구에서 얻은 인

<표 7> 계 속

연대	논문번호	발행연도	연구자명	연구절차								인체측정방법에 따른 피험자의 항목 수								
				인체 측정	소비자 조사	업체 조사	실험 원형	작의 실험	연구 원형	작의 평가	자료 분석	그레 이딩	1차원 측정		2차원 측정		3차원 측정		기타 측정	
													측정 인원	측정 항목	측정 인원	측정 항목	측정 인원	측정 항목	측정 인원	측정 항목
5 연대	41	2000	이형숙, 임영자										560	45						
	42	2000	김애린										560	22						
	43	2000	김미숙, 김경희																	
	44	2000	임지영, 김혜경														4	10		
	45	2000	나미향 외										3	16	3	-	3	-		
	46	2000	류영숙, 이정란										244	52						
	47	2000	정혜탁, 함옥상																	
	48	1999	강순제 외										446	33						
	49	1999	정옥임																	
	50	1999	강순제 외																	
	51	1999	함옥상, 정인향										16	59			16	14		
	52	1998	이정임, 남윤자																	
	53	1997	윤정혜, 이정순										680	-						
	54	1997	손희순, 손희정										400	73						
	55	1997	나미향										9	12			9	4		
	56	1997	박순지, 김혜경										4	-			4	12		
	57	1997	김소라, 송미령										18	-	18	-				
	58	1996	석은영, 김혜경										6	46			6	53		
4 연대	59	1995	나미향 외										9	15			9	4		
	60	1989	최명은, 임원자										100	17						
3 연대	61	1988	곽혜진, 임원자										103	29						
	62	1988	임원자, 최혜주										305	49					10	7
	63	1987	김애린										704	24						
	64	1987	이영희 외										130	21						
2 연대	65	1985	임원자, 김향인										105	25						
	66	1985	이향숙										169	18						
	67	1984	조성희, 임원자 (*79)																	
	68	1984	도재은, 이영숙										324	24						
	69	1982	이숙녀, 도재은										352	24					15	4
	70	1981	임원자, 최현숙										20	7						
1 연대	71	1980	최혜주										307	-						
	72	1970	임원자										100	24						
	73	1968	임원자										4550	12						

음영=실행된 연구절차/인체측정은 원형설계를 위해 수행된 경우만 실행한 것으로 간주(피험자 선정을 위한 인체측정은 제외)

*=동일 연구자의 선행연구에서 인체측정 실시/(연도)=국민체위조사 원자료 분석/=명확한 수 밝히지 않음

체측정데이터를 사용한 논문은 3편(남윤자, 최인순, 2002; 윤정혜, 이정순, 1997; 이소영, 심부자, 2008)이

있으며, 국민체위조사자료(*79, '85, '92, '97 및 사이크로리아 2004)의 인체측정데이터를 분석하여 사용한 논

<표 8> 연대별 원형설계를 위한 인체측정방법의 종류

연 대	1연대	2연대	3연대	4연대	5연대	6연대	7연대	계	
	1968~1980	1981~1985	1986~1990	1991~1995	1996~2000	2001~2005	2006~2009		
인체측정방법								측정방법별 논문 수(%)	
1차원 측정	3 (100.0%)	5 (83.33%)	5 (83.3%)	1 (50.0%)	12 (60.0%)	14 (70.0%)	6 (42.9%)	46(64.8%)	
2차원 측정	0	0	0	0	2 (10.0%)	3 (15.0%)	0	5(7.0%)	
3차원 측정	기 준	0	0	1 (50.0%)	6 (30.0%)	2 (10.0%)	4 (28.6%)	13(18.3%)	
	3D스캔	0	0	0	0	1 (5.0%)	4 (28.6%)	5(7.0%)	
기타 측정방법	0	1 (16.7%)	1 (16.7%)	0	0	0	0	2(2.8%)	
계	논문 수	3	6	6	2	20	20	14	71(100.0%)
	연대의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	4.2%	8.5%	8.5%	2.8%	28.2%	28.2%	19.7%	

1차원 측정= 직접측정 / 2차원측정= 사진계측법, 실루에터법, 슬라이딩게이지법 등
 3차원 측정(기준)= 슬라이딩게이지에 의한 단면중합, 레플리카법, 무아레사진촬영법 등
 3차원 측정(3D스캔)= 3D스캐너를 이용한 3차원 측정 / 기타 측정법= 체표면 동작실험에 따른 1차 측정

문과 통계치를 참고한 논문은 각각 3편(4.1%)과 19편(12.3%)이었다. 임원자, 최현숙(1981)은 '79 국민표준체위조사자료의 18~24세 여성 14개 항목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대표항목을 설정하고 추가항목을 직접측정하여 원형설계에 사용하였고, 조성희, 임원자(1984)는 '79 국민표준체위조사자료 중 18~24세에 해당하는 1,023명 여성의 직접측정치 15개 항목과 3개의 계산항목을 분석하여 원형설계의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오송윤, 최혜선(2007)은 사이즈코리아(2004)의 19~25세 501명의 직접측정치를 분석하여 브래지어 치수규격을 설정하고 원형설계를 위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범국민적 인체측정사업의 데이터 활용은 보다 다양한 연령대와 체형을 위한 원형개발 연구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소비자 및 업체 조사

원형설계에 앞서 소비자 또는 업체 조사를 한 논문은 각각 4편(5.5%)과 7(9.6%)편이었다(표 10). 연구대상의 연령대와 동일한 타깃을 가진 브랜드를 선정하여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모델리스트와 그레이딩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원형설계에 참고가 되는 설문조사를 하고, 더불어 기준원형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업체의 원형을 수집하기 위한 의도가 대부분이었는데, 소비자 및 업체에 대한 조사는 '여자중학생의 Bodice

기본원형에 관한 연구'(도재은, 이영숙, 1984)를 제외하면 모두 2001년 이후의 논문에서 사용된 연구방법이었다.

3) 실험원형설계 및 착의실험

대부분의 조사대상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완성된 원형을 연구원형으로, 연구원형을 도출해내기 위한 실험단계의 초기원형을 실험원형이라 명명하였다.

1차 실험원형을 설계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는데, 선정한 기준원형제도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실험의를 제작한 후 피험자에게 착장시켜 가장 좋게 평가된 원형을 연구자가 착의·보정하는 방법이 37편(50.7%)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기준원형의 제도법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변형한 제도법으로 1차 실험원형을 제작하는 방법이 12편(16.4%), 체표면 전개도와 같은 간접측정분석치를 토대로 실험원형을 설계하는 방법과 직접측정치를 분석하여 실험원형제도에 직접 적용시키는 방법이 각각 11편(15.1%)으로 유사한 빈도로 사용되었다(표 9). 실험원형설계의 연대별 특징을 살펴보면, 4연대까지는 직·간접측정치를 이용하여 제도식을 고안해내는 방법이 보편적으로 사용된 반면, 5연대 이후로는 선정한 기준원형의 제도법에 따라 해당 치수를 대입하여 실험의를 제작한 후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기준원형을 수정하는 방법이

<표 9> 연대별 1차 실험원형설계방법

연 대	1연대	2연대	3연대	4연대	5연대	6연대	7연대	계	
	1968~1980	1981~1985	1986~1990	1991~1995	1996~2000	2001~2005	2006~2009		
1차 실험원형 설계방법								1차 실험원형 설계방법별 논문 수(%)	
기존원형제도법에 따라 그대로 제작	1 (33.3%)	0	2 (40.0%)	0	10 (55.6%)	14 (60.9%)	10 (58.8%)	37(50.7%)	
기존원형을 참고로 변형하여 제작	0	1 (16.7%)	0	0	2 (11.1%)	5 (21.7%)	4 (23.5%)	12(16.4%)	
기존원형 없이 직접측정 자료를 이용하여 제작	1 (33.3%)	5 (83.3%)	3 (60.0%)	0	1 (5.6%)	1 (4.3%)	0	11(15.1%)	
기존원형 없이 간접측정 자료를 이용하여 제작	0	0	0	1 (100.0%)	4 (22.2%)	3 (13.0%)	3 (17.6%)	11(15.1%)	
기 타	1 (33.3%)	0	0	0	1 (5.6%)	0	0	2(2.7%)	
계	논문 수	3	6	5	1	18	23	17	73(100.0%)
	연대의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기타=입체재단 방식 이용 등

<표 10> 연구원형의 적합성 검증을 위한 연대별 착의평가의 종류

연 대	1연대	2연대	3연대	4연대	5연대	6연대	7연대	계	
	1968~1980	1981~1985	1986~1990	1991~1995	1996~2000	2001~2005	2006~2009		
연구원형에 대한 착의평가								착의평가별 논문 수(%)	
정성적 평가	외관평가	1 (100.0%)	4 (66.7%)	4 (66.7%)	1 (100.0%)	13 (68.4%)	21 (65.6%)	16 (64.0%)	60(66.7%)
	기능성/동작적합성 평가	0	1 (16.7%)	2 (33.3%)	0	5 (26.3%)	8 (25.0%)	6 (24.0%)	22(24.4%)
정량적 평가	0	1 (16.7%)	0	0	1 (5.3%)	3 (9.4%)	3 (12.0%)	8(8.9%)	
계	논문 수	1	6	6	1	19	32	25	90(100.0%)
	연대의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인체측정치 분석을 토대로 실험원형설계를 한 연구에 있어서는 3연대 이전에는 대부분 직접측정자료를 사용한 반면 4연대 이후로는 간접측정자료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3연대까지의 초기연구에서는 직접측정치만 사용했던 실험방법이 4연대 이후 직접측정치를 주로 하되 간접측정치를 병행하며 보완하는 방법으로 변화하고, 6연대 후반부터는 체표셀 전개(김나영 외, 2006; 김정하, 나미향, 2007; 나미향, 손후조, 2006)와 3D스캐너 사용(서동애, 천종숙, 2004; 서추연, 2009; 서추연, 박순지, 2008; 정미애, 남윤자, 2007; 정연희, 홍경희, 2006) 등의 간접측정이 증가 되는 실험설계로 변화했음을 의

미한다 하겠다.

착의실험은 연구원형을 완성하기 위하여 실험원형에 대한 착의적합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원형제도식을 수정하는 과정으로,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거해 착의·보정을 하는 방법과 지정된 문항과 지정된 평가척도로 구조화된 착의평가형식을 갖추어 진행하는 방법 모두 사용되고 있었다. 조사대상 논문의 경우 1차 실험원형에서부터 연구원형을 완성할 때까지 수행한 착의실험의 횟수는 1회에서 4회까지로 나타났는데, 그중 3회 실시가 23편(31.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2회 실시 15편(20.5%)과 1회 실시 12편(14.4%)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대별로는 3연대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연구에서 3-4회의 착의실험과정을 거

쳤으나, 5연대 이후에는 착의실험과정을 아예 거치지 않거나 1~2회만으로 착의실험을 마치는 연구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시대가 흐를수록 전반적으로 착의실험 과정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착의실험횟수가 실험원형설계방법이나 인체측정데이터의 종류 그리고 피험자 수 등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 것으로 미루어, 이러한 경향은 2000년대 이후의 원형설계 연구가 초기논문에 비해 인체측정법의 다양화 및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체표면 전개 등의 새로운 원형개발법 시도와 연구원형에 대한 착의평가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4) 연구원형 완성 및 착의평가

조사대상 논문의 82.2%인 60편의 연구에서 최종 완성된 연구원형에 대한 착의적합성 검증을 위한 착의평가가 실시되었다. 착의평가방법은 크게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로 나뉘었는데, 착의평가를 실시한 연구 60편 모두는 외관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하였고, 그중 27편(37.0%)은 외관평가와 병행하여 기능성에 대한 관능검사 또는 정량적 평가를 추가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착의평가에 있어 기본적으로 심미성이나 맞춤새에 대한 외관평가를 실시하고 이와 병행하여 여러 가지 동작을 취한 상태에서의 의복의 적합성을 평하는 기능성(동작적합성 또는 안락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외관과 기능성 평가는 사람의 주관에 따른 정성적 평가이므로 객관적이고도 정량적인 착의평가 결과를 얻기 위하여 정량적 평가를 더불어 실시한 것이다. 정량적 평가에는 의복압 측정(김진선, 이원자, 2001, 2004; 박진아, 2003), 무아레 사진촬영(임지영, 김혜경, 2000), 3D스캔데이터를 활용한 공극량 분석(정연희, 홍경희, 2006), 패턴이동 치수측정(도재은, 이영숙, 1984), 착의 시 신체변화 측정(박유신, 장은영, 2008; 오송윤, 최혜선, 2007) 등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외관평가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가 척도는 절대적 평가방법인 Likert scale 척도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거나 드물게 상대적인 평가인 일대일 비교법(김진선, 이원자, 2004; 이정임, 남윤자, 1998; 정혜락, 함옥상, 2000) 등도 사용되고 있었으며, 외관평가의 검사자는 의류학 또는 의복구성 전공의 대학원생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37편-61.7%) 의류학 전공 교수 또는 현업에 종사하는 모델리스트 등도 소수 있었다. 외관평가 시 착장상태 제시방법은 피험자가

‘검사자 앞에서 직접’ 지정된 위치에 서서 전·측·후면을 보여주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동작을 취하게 하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착장상태의 전·측·후면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사진으로 인쇄’하거나 ‘스크린상’에서 제시하여 착의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서동애, 천종숙, 2004; 성옥진, 양정은, 2006; 정미애, 남윤자, 2007; 정연희, 홍경희, 2006) 또는 ‘비디오 촬영 영상’을 보여주는 방법(서동애, 천종숙, 2004) 등도 사용되고 있었다.

착의평가의 연대별 특성은 외관평가의 경우 연대와 상관없이 꾸준히 60% 이상의 비율을 보이며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기능성 평가나 정량적 평가는 2~3연대에도 소수 사용되었지만 주로 5연대 이후에 사용되었으며, 특히 6연대 이후에 정량적 평가의 시도횟수가 늘어나고 있었다는 것이다(표 10). 또한 시대를 거듭할수록 착의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비율보다 실시하는 비율이 대체적으로 높아지고 착의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도 외관평가만 실시한 경우의 비율에 대해 외관평가와 함께 기능성 평가나 정량적 평가를 병행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로써 시대를 거듭할수록 원형설계 논문에 있어 착의평가의 종류나 방법이 보다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인체측정 및 착의평가 결과 자료분석

의복원형설계 연구에 있어 인체측정 및 착의평가 결과 자료를 분석하는 통계기법을 살펴본 결과<표 11>, 큰 맥락에서 연대별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인체측정치의 분석은 기술통계(평균, 표준편차, 분산, 전체 평균점수 등), 측정항목 간의 상관관계분석, 대표항목과 다른 항목들 간의 관계식을 도출하는 회귀분석이 주로 사용되고 있었고, 체형분석의 내용이 있는 경우 요인분석, 군집분석, 판별분석 등을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측정된 인체치수를 적용하여 장촌식 제도 방식의 연구원형을 제시하는 초기년도에 많은 논문들이 상관관계분석과 회귀분석기법을 사용하였다. 착의평가 자료의 분석은 주로 기술통계(평균, 표준편차 등), 평균비교(t-test, ANOVA 등) 및 종합적 신뢰도 검사(Cronbach's α 계수)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수이지만 각 항목별 평가점수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Wilcoxon의 결합 기호순위검증법(서동애, 천종숙, 2004), 두 원형 간의 유의차 검정을 위한 Mann-Whitney test와 검사자들 간

<표 11> 인체측정 및 착의평가자료 분석기법

인체측정자료 분석기법	논문 수(%)	착의평가자료 분석기법	논문 수(%)
기술통계(평균, 표준편차 등)	41(41.0%)	기술통계(평균, 표준편차 등)	57(35.4%)
상관관계	23(23.0%)	평균비교(t-test, ANOVA 등)	47(29.2%)
회귀분석(최소자승법 등)	15(15.0%)	종합적 신뢰도 검사	26(16.1%)
요인분석/군집분석	6(6.0%)	χ^2 테스트	26(16.1%)
기타 분석법 (빈도분석, 평균비교, 판별분석, 편평율 등)	15(15.0%)	기타 분석법 (Wilcoxon결합기호순위검증법, Kruskall-Wallis test 등)	5(3.1%)
계	100(100.0%)	계	161(100.0%)

의 신뢰도 검정을 위한 Kruskall-Wallis test(곽혜진, 임원자, 1988; 나미향, 1997; 나미향 외, 1995) 등의 통계기법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IV. 결론 및 제언

의복의 원형설계는 의복구성학에 있어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영역으로, 시대적 흐름에 따른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의복원형설계에 대한 그간의 연구들을 고찰함으로써 의복원형설계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 관련 연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시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SI(한국학술정보)를 통해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의복원형설계 관련 연구를 고찰해 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연구논문은 11개의 학술지에 게재된 총 73편의 연구로, 1968년 대한가정학회지에 첫 논문이 발표된 후 5년 단위의 7개 연대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5연대(1996~2000년) 이후로 더욱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시대가 흐를수록 꾸준한 증가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조사대상 논문의 연구주제를 복종별, 소재별로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연구는 서양의복구성을 주제로 하고 있었고, 아이템별로는 길·토루소원형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연대별 흐름의 특징은 제5~6연대 이후로는 그간 연구되지 않은 주제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인데, 속옷과 한복의 원형구성, 그리고 슬렉스 및 블라우스·셔츠원형, 재킷원형 등에 대한 연구 수가 점차 늘고 있으며, 신축성소재에 대한 수요 증가 경향에 맞추어 소재의 특성을 고려한 원형개발이 2000년대 이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조사대상 논문의 연구대상을 성별, 연령별, 체형별로 분석한 결과 여자원형에 대한 연구가 72.6%로

남자원형에 대한 연구의 거의 3배에 달하였고, 연령 대별로는 남녀 모두 청년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평균체형·치수를 대상으로 하던 초창기 연구와는 달리 제5~6연대 이후로는 다양한 체형에 맞춘 원형개발 연구가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유아아기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며 남자 청소년기와 노년기, 남자 비만체형 등에 대한 연구는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의복원형설계 연구의 연구절차는 큰 틀에서 인체측정→소비자 및 업체 조사→기존원형분석→실험원형설계→착의실험→연구원형완성→착의평가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초기연구들은 인체측정을 통한 치수자료를 토대로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제도시에 필요한 대표항목을 설정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었으나, 최근 들어서 사이즈코리아(2004) 측정치원자료 또는 선행연구의 측정치원자료를 사용하는 방법도 사용되고 있었다. 인체측정방법은 주로 1차원 측정방법이 주를 이루고, 이와 함께 2차원 및 3차원 측정법이 병행되고 있는데, 특히 3차원 측정 중 3D스캐너의 사용빈도는 2004년 이후 급속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실험원형은 인체측정치와 기존원형들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설계되고, 제1~4차에 걸친 착의실험을 통해 연구원형으로 완성되었다. 연구원형에 대한 적합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실시되는 착의평가는 외관과 기능성에 대한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인 평가가 사용되고 있었다. 인체측정과 착의평가 결과자료는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적절한 기법으로 분석되어졌는데, 인체측정은 주로 기술통계,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이 사용되었고, 착의평가는 기술통계, 평균비교, 종합적 신뢰도 검사방법 등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KSI(한국학술정보)에 소장된 학술지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한국학술정보에

소장되지 않은 논문은 제외된 제한점이 있으며, 앞으로 원형설계 관련 학위논문의 고찰도 함께 이루어진다면 의복원형설계 연구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강순제, 조효숙, 홍나영, 남윤자, 황의숙. (1999). 여자한복의 기성복화를 위한 패턴개발-20대를 중심으로-. *복식*, 44(0), 77-89.
- 강순제, 홍나영, 남윤자, 조효숙, 황의숙. (1999). 20대 남자한복 기성복화를 위한 바지·저고리 패턴개발. *복식*, 47(0), 61-71.
- 곽혜진, 임원자. (1988). 임신부의 체형변화에 따른 기본스커트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2(2), 145-158.
- 구미지. (1997). 성인여성의 의복원형개발에 관한 연구-성인여성의 체형분류에 관한 연구의 후속연구-. *복식문화연구*, 5(4), 130-158.
- 김경임, 이정란. (2003). 하반신마비 남성의 기성복 바지원형 및 그레이딩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7(12), 1441-1452.
- 김나영, 장정아, 김주애. (2006). 청년기(18~24세) 여자의 체표면 전개도에 의한 길 원형설계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4(3), 434-442.
- 김미숙, 김경희. (2000). 여고생의 Bodice 원형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4(7), 1004-1014.
- 김미영, 여혜린, 권영숙. (2001). 만 9세-10세 남아의 저고리 원형설계에 관한 연구. *복식*, 51(7), 147-165.
- 김미정, 조진숙. (2006). 남성캐주얼 재킷원형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0(2), 207-220.
- 김민진, 이정란. (2003). 어깨 유형에 따른 길 원형설계-20대 여성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7(5), 463-474.
- 김소라, 송미령. (1997). 체형별 토르소원형의 개발에 관한 연구-다트(Dart) 배분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1(2), 262-276.
- 김순분, 광명숙, 박채린. (2004). 스트레치 소재를 사용한 현대무용 타이츠팬츠원형 설계. *대한가정학회지*, 42(4), 45-54.
- 김애린. (1987). 30~40대 여성의 의복원형제작을 위한 연구 -Bodice와 Sleeve를 중심으로-. *인문과학*, 16(0), 181-210.
- 김애린. (2000). 20대 초반 여성을 위한 슬랙스 기본원형개발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 3(0), 209-228.
- 김애린. (2002). 스트레치 소재의 의류패턴개발에 관한 연구 II-20대 여성의 스커트 원형을 중심으로-. *생활과학*, 5(0), 17-32.
- 김정하, 나미향. (2007). 여성용 briefs 패턴설계-20대 여성의 기본사이즈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충북가정학회지)*, 16(4), 801-811.
- 김진선, 이원자. (2001). 체형별 남성상의원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5(10), 1754-1762.
- 김진선, 이원자. (2004). 남성재킷패턴설계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2(6), 953-979.
- 김현순. (2009). 학령후기 여아의 바디스 원형개발. *복식*, 59(9), 16-25.
- 나미향. (1997). 임부용 기본스커트 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충북가정학회지)*, 6(1), 55-64.
- 나미향, 김미선, 박성혜. (1995). 임부용 길 원형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충북가정학회지)*, 4(1), 75-83.
- 나미향, 김연희, 김미선. (2000). 임신부용 슬랙스 패턴설계에 관한 연구-임신중기 말기의 기본슬랙스 패턴설계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충북가정학회지)*, 9(4), 471-482.
- 나미향, 손후조. (2006). 파운데이션(FOUNDATION)용 투루소원형설계. *한국생활과학회지(충북가정학회지)*, 15(6), 1073-1081.
- 남윤자, 최인순. (2002). 노년여성을 위한 재킷원형설계. *대한가정학회지*, 40(10), 177-189.
- 도재은, 이영숙. (1984). 여자중학생의 Bodice 기본원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2(1), 69-78.
- 류영숙, 이정란. (2000). 중년여성의 자켓패턴설계. *한국의류산업학회지*, 2(4), 353-359.
- 문화여자대학교피복구성학연구소. (1985). *피복구성학 이론편*. 박혜숙 옮김 (1987). 서울: 경춘사.
- 박순지, 김혜경. (1997). 중년기 여성을 위한 슬랙스원형설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4), 79-94.
- 박유신, 장은영. (2008). 브래지어 원형설계-75A를 중심으로-. *패션비즈니스*, 12(1), 109-119.
- 박은미, 손희순. (2001). 성인여성용 브래지어원형 개발 연구 (제1보)-75A 치수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5(4), 719-730.
- 박진아. (2003). Stretch 소재를 사용한 여성용 Bodysuit 원형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섬유공학회지*, 40(6), 562-571.
- 박진아. (2005). Stretch 소재를 사용한 여성용 Bodysuit Sleeve 원형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9(12), 1535-1545.
- 백경자, 이정란. (2003). 20대 남성의 어깨 부위 형태 및 길 원형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7(3/4), 429-440.
- 백경자, 이정란. (2001). 남성 정장 바지원형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5(8), 1524-1535.
- 서동애, 천종숙. (2004). 3차원 인체스캐너데이터를 활용한 남성용 바디스 원형설계방법 연구. *복식문화연구*, 12(2), 290-299.
- 서추연. (2009). 체표면 분할법에 의한 성인남성용 피티드 토르소형 원형설계. *한국의류학회지*, 33(7), 1109-1120.
- 서추연, 박순지. (2008). 노년여성의 3-D 입체형상데이터를 활용한 상반신 원형설계방법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2(5), 846-858.
- 석은영, 김혜경. (1996). 남성복 바지원형의 자동제도에 관

- 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0(1), 54-65.
- 성옥진, 김애린. (2003). 스트레칭성 소재를 이용한 슬렉스 원형연구-신축방향에 따른 원형변화를 중심으로-. *생활과학*, 6(9), 215-231.
- 성옥진, 양정은. (2006). 중년남성의 체형별 셔츠원형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0(11), 1550-1559.
- 손희순, 손희정. (1997). 성인여성의 의복원형개발에 관한 연구-성인여성의 체형분류에 관한 연구의 후속연구-. *복식문화연구*, 5(4), 130-158.
- 손희순, 위혜정. (2003). 중국 성인여성의 Bodice 원형 연구-북경·상해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패션비즈니스*, 7(4), 129-141.
- 송윤화, 조진숙. (2009). 7세 여아 블라우스 원형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3(2), 187-199.
- 오송윤, 최혜선. (2007). 1924세대용 브래지어 원형개발 및 그레이딩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1(4), 633-645.
- 유경진, 이정란. (2002). 남성정장 상의원형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6(1), 62-73.
- 윤정혜, 이정순. (1997). 남자 아동 기성복 패턴제작의 표준화를 위한 연구-상의원형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5(3), 176-183.
- 이소영, 심부자. (2008). 중국 20대 남성의 슬렉스 패턴개발. *패션비즈니스*, 12(1), 93-108.
- 이숙녀, 도재은. (1982). 학령기 어린이의 Bodice 기본원형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6(2), 131-141.
- 이영희, 박정순, 이정순. (1987). 비만체형을 위한 기본 Slacks 원형연구-중년기 부인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5(3), 27-36.
- 이정임, 남윤자. (1998). 남성의 클래식 재킷원형에 관한 연구-20대 초반의 남성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2(5), 654-663.
- 이진희, 조현정. (2001). 중년여성을 위한 토루소원형설계에 관한 연구. *복식*, 51(8), 111-121.
- 이향숙. (1985). 女子大學生の Bodice原型製作에 관한 研究. *首席論集*, 10(0), 533-545.
- 이현옥, 조경숙. (2008). 학령기 여아를 위한 바지원형개발에 관한 연구. *복식*, 58(8), 47-62.
- 이형숙, 임영자. (2000). 20대 전반 여성의 체형별 기성복 치수실정과 원형개발에 관한 연구. *복식*, 50(3), 87-104.
- 이효진, 김진. (2007). 노년여성의 기능성 팬티패턴개발 연구. *복식문화연구*, 15(5), 737-748.
- 임원자. (1968). 중고등학교 여학생의 체형과 Basic Pattern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0), 938-952.
- 임원자. (1970). 여자대학생의 체형과 의복의 원형구성법에 관한 연구-신체각부위의 상관계수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8(0), 21-35.
- 임원자. (2003). *의복구성학-설계 및 봉제* (개정2판). 서울: 교문사.
- 임원자, 김향인. (1985). 노년기 여성의 의복원형설계법 연구-60세 이상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9(3), 173-182.
- 임원자, 최해주. (1988). 표준의복원형설계법에 관한 연구 (I) -부인복 길 소매 스커트 원형설계-. *한국의류학회지*, 12(1), 93-114.
- 임원자, 최현숙. (1981). 스커트제작을 위한 원형연구-18세~24세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5(2), 69-81.
- 임지영, 김혜경. (2000). 여중생의 하반신 유형별 슬렉스 원형설계 및 착의평가에 관한 피복인간공학적인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4(8), 1125-1136.
- 장지혜, 양정은. (2005). 입체재단에 의한 Plus size 여성의 토루소 원형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3(10), 179-190.
- 전은경, 한현정. (2008). 국내 학회지에 게재된 발 관련 계측 연구의 동향. *한국의류학회지*, 32(4), 608-617.
- 정복희, 나미향. (2001). 20대 여성의 Tight - fit 원형설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8), 137-153.
- 정영희, 홍경희. (2006). 3D스캐너데이터를 활용한 밀착패턴 원형개발. *한국의류학회지*, 24(1), 157-166.
- 정옥임. (2007). 한복 여자두루마기 원형설계의 표준화를 위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5(3), 11-21.
- 정옥임. (1999). 남자저고리 원형제도법 개발을 위한 연구 (2)-깃구성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7), 17-27.
- 정혜라, 함옥상. (2000). 중년여성을 위한 기본원형설계. *한국의류학회지*, 24(1), 105-115.
- 조성희, 임원자. (1984). 디바이디드 스커트원형설계에 관한 연구-18-24세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8(1), 57-67.
- 최명은, 임원자. (1989). 진동 형태 및 소매원형제도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4), 1-9.
- 최선윤, 이정란. (2003). 성인여성의 등면형상 유형화와 길 원형설계. *한국의류학회지*, 27(7), 758-769.
- 최해주. (1980). *아동복 제작을 위한 원형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해주. (1980). 아동복 제작을 위한 원형연구-서울의 6~8세 여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18(4), 111-112.
- 함옥상, 정인향. (1999). 중년여성의 하반신 체형분류에 따른 슬렉스 원형제작. *복식문화연구*, 7(6), 996-1014.
- 황영미, 이정란. (2003). 드레스 셔츠원형설계 및 그레이딩 룰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7(1), 48-59.
- Sohn, H. S., & Kang, Y. K. (2005). A study on the basic pattern of bodice block for adult women in China-Focusing on women in 20s residing in Beijing and Shanghai-. *Journal of Fashion Business*, 9(3), 64-87.
- Jeong, M. E., & Nam, Y. J. (2007). A study on the automatic pattern development of adult male basic pattern using 3d body scan data. *Journal of Fashion Business*, 11(3), 35-45.